

<지난주 말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시대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충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찾고 있고 이 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봐야 할 현장의 모습이고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고 구원받지 못한 현장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할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봐야 할 모습은 미래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는 오늘의 축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현실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연결된 미래가 오늘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답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과거는 안 되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되는 오늘을 붙잡고 되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 앞에 사람들이 서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표,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진노의 큰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판의 날에 미래는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구약을 통과하고 4복음서를 통과하고 서신서를 통과한 이후에 보게 되는 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65권을 통해서 계시록을 읽을 때는 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답이 난 사람이 계시록을 보니까 미래가 선명히 보이고 미래에 환란이 와도 괜찮을 수 있는 답을 또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오는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은 나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답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과거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봉인된 두루마기를 여실 분이 누구냐? 내 인생의 절대주권을 펴고 열고 볼 수 있는 분,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 분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린 양'이 붙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속물을 위해 희생된, 피가 보증으로 되어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분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서 두루마리를 여시고, 우리를 관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분은 재림주로 서십니다. 심판주로 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계실 하나님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1.사도 요한이 본 것

▶도대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런 절규를 합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노아 시대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쏟아지는 비 속에서 아우성치는 현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방주 앞으로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아우성치며 문을 두드릴 거 아니요? 그렇지만 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계6:1)

지난 주에 하나님 보좌의 네 생물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자 같은 모습, 송아지 같은 모습, 사람 얼굴같은 모습, 독수리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이 생물들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우리가 상상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네 생물을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확정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렛소리처럼 오라고 말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계6:2)

여기서 흰 말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정복의 의미가 있고, 승리자의 모습이고 이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것은 지속성을 말합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계6:3-4)

붉은 말의 의미는 전쟁과 피흘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 인을 떼면서 나오는 생물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니까 생물들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니까 땅에서 화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전쟁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에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계6:5)

세 번째로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은 어둠과 기근과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불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재앙을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때 건강한 한 남자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에서 식량난의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 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계6:6)

그런데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들이 감람유와 포도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미래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린양의 피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검은 말을 탄 자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네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에 보호되지 않으면 어떡하십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계6:7-8)

청황색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망과 음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탄 자의 이름도 사망이라고 합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청황색의 말을 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도록을 하는 장면입니다. 온 지구, 땅의 1/4을 권세를 받아서 멸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멸망이 오는데 감람유와 포도주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면 미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계6:9-10)

다섯째 인을 떼니까 짐승이 안 나오고 복음으로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순교자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계6:11)

이 순교자들이 다섯째 인으로 흰 두루마기를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순교자가 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복음을 위해 생을 걸만한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흰 두루마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흰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섯째 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순교의 피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온다면 여러분은 아멘하셔야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적으로 볼 때 이 수가 차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 언제 찰까요? 이 수가 세계복음화되는 날 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미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어제든 얘기하더라도, 내 말을 듣지 말고 말씀을 듣고 나면 반드시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확인을 안해요. 전도자가 내 말 듣지 말라고 합니다. 확인도 안하고 메시지가 틀리니 맞니 합니까. 여러분은 미래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나의 12지역, 12현장을 놓고 12명을 찾는 결단을 하세요. 미션입니다. 내 인생에 12명을 찾는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전도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이제는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계6:12-14)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은 피같이 되어지고, 하늘과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진다고 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광경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는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계6:15)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전부 다 숨기에 바쁩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마지막 때 온 곳에 난리가 나는데 숨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과 열심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수풀에 숨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멸망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미래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계6:16)

우리를 가려라, 숨겨라, 우리를 제발 살려 달라, 이 절규를 들으셔야 합니다. 현장의 절규, 학교의 절규, 학생의 절규를 들어야 합니다. 집사님, 나 좀 살려 주세요.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여러분 영혼에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비밀이 계시록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계시록이 쉬워요. 괜찮아요. 그런데 안 괜찮은 게 하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수를 채우는 전도의 짐입니다. 영혼들을 살리라는 사인이구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미래를 보면서 오늘의 저 현장을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서 좋은데 내 가족의 미래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복음 안 전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좀 살려줘라. 오늘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담기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수만 영혼이 진노 앞에서 절규하는구나. 임금도, 왕족도, 장군도, 부자도,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

인도 숨어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합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고 영혼에 들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1,3,8의 비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정표가 우리에게 담겨야 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6:17)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일곱 인을 떼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계8:1)

일곱째 인을 떼 때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코자 함이라(계8:2-3)

일곱 인이 떼어질 때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또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음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기 바랍니다.

▶열두 지역, 열두 제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 그 전도의 축복을 1,3,8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누리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